

# 타고 남은 재 다시 기름이 되어

2면에서 계속

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몰라. 주어진 문제가 크가 작은 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네. 내가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그것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네. 기미년에 있었던 독립 선언도 그 전에 선택의 순간에 있었네.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경우 잘못하면 폭동이 야기되거나,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으니 독립 운동을 하지 말고 일본에 독립청원서를 내자는 의견이 있었다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엄연히 독립국이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레 겁을 먹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나는 독립청원의 부당성을 설파하며 그들을 설득했네. 결국은 독립선언으로 노선이 확정 되었지."

만해 스님은 익히 알려진 대로 원칙주의자였다. 스님이 말씀하셨던 기미년 3월 1일, 독립 선언식이 끝난 직후 일경이 들이닥쳐 거기 모여 있던 민족 대표 모두가 총감부에 구금된 후 재판을 받던 때의 슬한 일화들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선사는 구속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셨다. 변호사를 대지 말 것, 사식을 들이지 말 것,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이 바로 그 3원칙이다. 나라를 찾으려는 행동에 변론은 필요 없으며,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독립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이라는 것은 일본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되니 하등에 해당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원칙은 재판이 진행되어 형량이 정해지고,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철저히 지켜졌다. 스님은 경찰의 심문에서도 시종일관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독립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조선독립이유서'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셨다. 53장으로 이루어진 실로 대논설이라 할 만한 원고였다. 이는 당시 상해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에 소개되어 많은 우국지사들의 가슴을 들끓게 하였으나 일제의 감시 때문에 국내에는 두루 전해지지 않고 있다. 몹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님의 이러한 강직한 성격에 관한 일화는 이 밖에도 많았다. 일찍부터 명망이 높으신 스님께는 유혹이 많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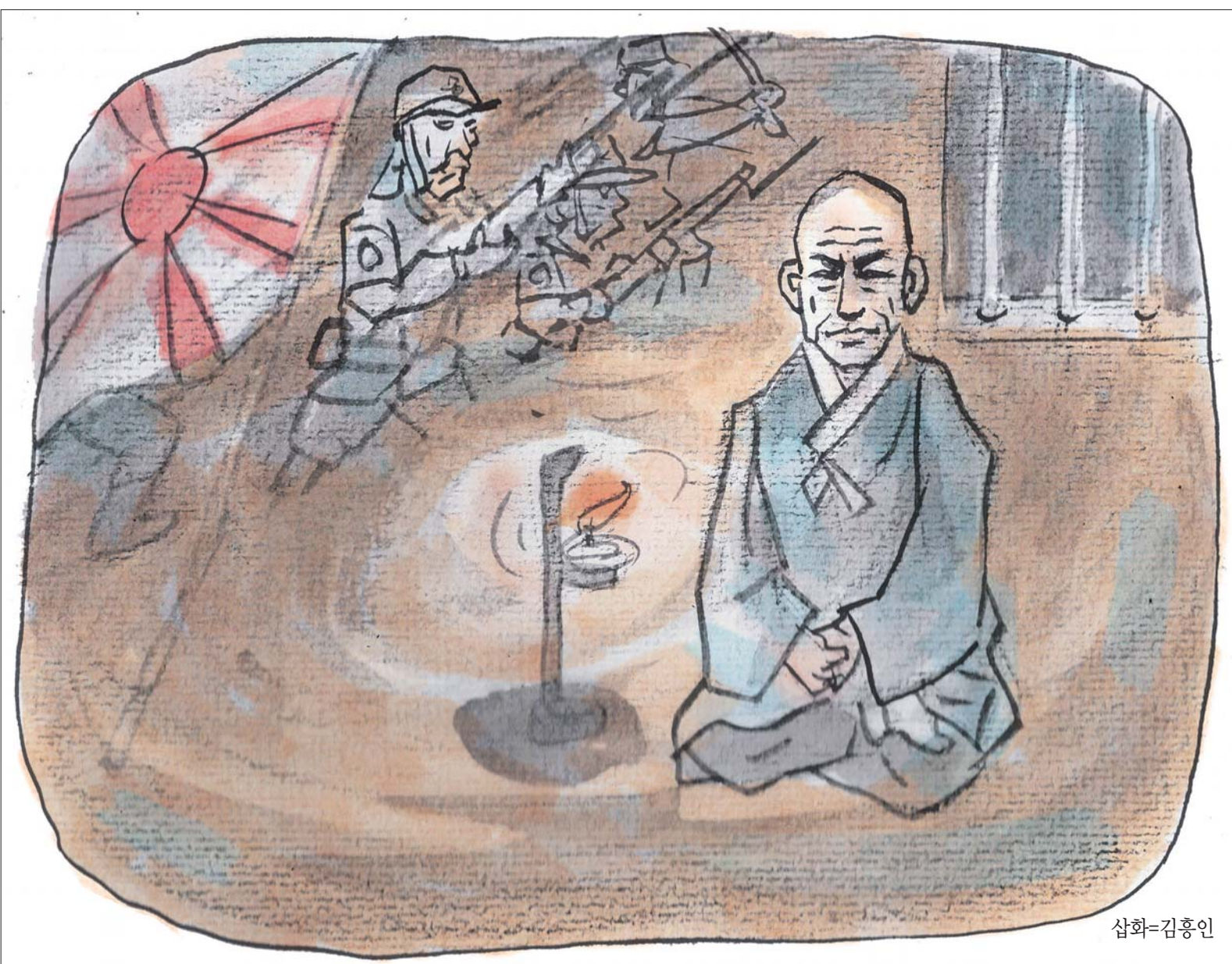
나. 바로 나 자신일세. 우리 각자란 이 말이네. 모든 것은 인과와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다네. 내가 여전히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지. 그러나 움직이게. 멈춰 있지 말라. 이 말이네. 지향을 만들어야 한다면, 자기 안에서 찾게나. 이미 변절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죽인 사람들에게 실망해 자신의 의지를 의심해야 할 이유는 없네. 제대로 살아가게."

마지막 말씀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아가야 할 바는 애초에 분명한 것이었다. 만약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또 다시 떠오른다면 그때는 바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되돌릴 일이었다.

그 후, 나는 만해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심우장을 나와서 그 길로 조선 땅을 떠났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확인해졌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멀고 먼 여정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지 이제 겨우 며칠, 귀국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기도 전에 부음을 전해들은 나로서는 애석함과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장례식은 미아리의 작은 화장터에서 불교식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그곳은 만해 스님이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 일송 김동삼 선생의 영결식을 했던 장소였다. 김동삼 선생이 누구인가. 항일 무장 투쟁에 평생을 바친 독립투사 아니었던가. 그러나 총독부의 시선이 두려워, 선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선뜻 그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로지 스님만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시신을 수습하러 달려가셨고, 다른 곳도 아닌 심우장에서 5일장을 지내신 것이다. 의로운 행위에 있어서 주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기엔 가능한 일이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우리들이 바로 그런 '만해 한용운다움'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나누고 있을 때였다. 화장터의 일꾼 중 한 명이 일행들에게 신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알려왔다. 화장이 끝나고 모두 소풍길 뺨 가운데서 유독 치아만이 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타지 않는 치아의 출현을 귀하게 여겨왔다. 일찍이 목격한 적이 없는 이 신묘한 현상은 만해선



삽화=김홍인

## “인생이 곧 선택이라고 해도

## 과언이 아닐지 몰라

## 내 선택이 나라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네”

다. 도장만 찍으면 성북동에 있는 산림 2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은행의 제안을 단칼에 뿌리치셨고, 총독부가 보내는 것이라며 돈을 가지고 온 젊은이는 그 돈을 싸가지고 온 보파리에 뺨을 맞아야 했다. 흥취에 젖은 지인이 무심결에 사용한 일본어 한 마디에도 정색을 하셨으며, 3.1운동 당시에 함께 참여했다가 변절한 풍자들은 아예 대놓고 죽은 사람 취급을 하셨다. 그 밖에도 스님은 조그마한 불의나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을 비타협주의자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간의 농담 기운을 섞어 이렇게 말했다.

“독선에 독단주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스님의 표정에서 자제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웃음이 가느다라졌다.

“지금 이 시대에 현실에 순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냐?”

“타협입니까?”

“일제에 땅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 현실이네. 몸에도 그들의 구속력이 발휘되어 한쪽에선 학병으로 전쟁에 나서야할 처지이며, 또 다른 쪽에선 노동력으로 강제 징용되고 있지. 여기서 타협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 자유라고 한다고 해두지.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자유인 셈이네. 앞에도 말했듯이 자유란 자신이 자각하는 것이며, 스스로 지켜가는 것일세. 누구로부터 주어지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조금이라도 억압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일세. 아마도 타협이 가지 있게 적용되는 시대도 분명 다가올 것이네. 그러나 지금은 아닐세. 나의 생각은 그러하네. 어떤 이들의 시선에 나는 꼭 막힌 원칙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을 테지.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원칙은 무용지물일 뿐이네.”

부쩍 짧아진 해가 어느새 지고 있었다. 방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온기도 점점 사라져갔다.

“자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지? 그것을 진정 몰라서 내게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거나. 세상의 시간은 차곡차곡 흘러가네. 그러나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

사의 높은 범력에 대한 감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이 그토록 확신에 차 엄연히하던 민족 독립의 전조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 모두는 머리 숙여 합장하고, 그 치아를 항아리에 담아 유골과 함께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하였다.

슬픔이 깊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스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본 회담을 각자의 가슴에 품고 다시 걸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듯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루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땀(汗)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를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알 수 없어요」, 만해 한용운

### 고지연 / 작가

동양 신화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녀는 독특한 상상력과 섬세한 문체를 통해 다수의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 전문 기업 지니앤노박(www.jiniandnovak.com)을 통해 환타지 소설 '수리아의 검'을 선보였다.

##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보조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조명

10월 7일(목) 9시 ~ 8일(금) 16시 / 서울 법륜사 대웅보전



### 1일차 (7일)

#### 제1부 식전 행사 09:00~09:40

- 사회 : 황정일 (본원 기획실장)
- 삼귀의례
- 대화사 현호 스님 (본원 이사장)
- 격려사 지승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인사말 법산 스님 (본원 원장)
- 축사 영조 스님 (송광사 주지)

#### 제2부 기조 발표 09:40~10:20

- 사회 : 황정일 (본원 기획실장)
- 법산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본원 원장) : 한국불교의 전통과 보조 지눌 스님
- 강건기 (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 : 오들의 세계, 왜 보조사상인가?

#### 제3부 최진사료 소개 & 주제 발표 I 10:20~12:00

- 사회 : 황순일 (동국대(서울) 불교학부 교수)
- 1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보조추봉사기」에 대한 소고
- 2 성원 스님 (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 : 박한영 (1870~1948)의 선 종파주의 비판 신회, 종밀과 지눌의 선교 통합주의 전통 계승
- 논평 :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
- 점심공양 12:00 - 13:20

#### 제4부 주제 발표 II 13:20~15:00

- 사회 :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 3 西村惠信 (일본 하나조노대 교수) : 지눌선의 사상적 특수성과 그 현대적 의의 - 돈오점수를 살펴본 소견
- 논평 : 계환 스님 (동국대(서울) 불교학부 교수)
- 4 吉津宜英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 보조국사에 있어서 교판으로부터 행판의 형성
- 논평 : 김전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 휴식 15:00 - 15:20

#### 제5부 주제 발표 III 15:20~17:50

- 사회 :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 5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 보조지눌 사상의 통시적 현재성
- 논평 : 최연식 (목포대 역사학과 교수)
- 6 최성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 普照禪의 返本還源
- 논평 : 정영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7 김방봉 (충남대 철학과 교수) : 보조 간화선의 성격과 그 현대적 의의
- 논평 : 김호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환영만찬 18:30 - 20:00

### 2일차 (8일)

#### 제6부 주제 발표 IV 09:00~11:50

- 사회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8 楊會文 (중국불교연구소 교수) : 보조지눌선사 선법약론
- 논평 : 김영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교수)
- 9 魏道儒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미정
- 논평 :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 휴식 10:40~11:00

- 사회 : 황순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 10 Guang Xing (홍콩대 불교학센터 교수) : 중국 문화에 있어서 선불교가 끼친 영향
- 논평 : 정덕스님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

· 점심공양 11:50 - 13:00

#### 제7부 주제 발표 V 13:00~15:30

- 사회 : 우제선 (동국대(서울) 불교학부 교수)
- 11 인경 스님 (동방대학원대 자연치유학과 교수) : 간화선에 기반한 명상상담 일고찰 -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중심으로 - 논평 : 미정
- 12 정승석(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 頓悟漸修와 真心息慮의 요가 철학적 성격
- 논평 :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 13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 : 위빠사나에 비추어 본 보조지눌의 수행체계
- 논평 : 이병욱 (고려대 철학과 강사)

· 총평 / 폐회사 / 사후서원 15:30 - 16:00

## 보조사상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법륜사 3층  
전화번호 02)733-5311/5315 FAX 02)733-5590 email : semcan@naver.com

International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Bojo Jinul's 800th Nirvana